

예 배 순 서

중추절 감사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시 106: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588, 589, 590장 (중 택1) 다 갈 이

성 시 교 독 다 갈 이

인도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회 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도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회 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도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회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 아 멘 -

신 앙 고 백 다 갈 이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따스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 아침,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궁홀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 없는 마음들, 감사에 인색
 한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
 여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강이 우
 리 가슴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감사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잡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케 하시는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 멘 -

성 경 봉 독 시 30:1-3, 11-12, 33:1-3 인 도 자

-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 2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이다
-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이다

말 씀 이 감사 인 도 자

성도의 감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
 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사
 탄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신 측
 량할 수 없는 이 은혜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이 감사로 변했고, 이 은혜 때문에 모

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가치입니다.

시편은 감사의 책입니다. 신앙의 책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많았고, 차별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에게나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본문과 같이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감사의 풍요로움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집에서도 감사를 빼버린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엄마,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최고예요. 고마워요.” 부모님이 자녀보고 “애, 고마워. 너 착해서 고마워. 공부 잘 해서 고마워. 건강해서 고맙다 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웃도 없고 더 큰 보화도 없습니다. 감사의 한마디로 문제가 변하고 살아나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 데도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있고, 잠을 못 자고, 증오로 가득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격언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늘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불평불만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곳에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때에 우리 사회를 치료하는 것도, 국가를 치료하는 것도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웃과 나누고, 가족에게도 함께 나누는, 축복이 가득한 중추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46장, 559, 563 (중 택1)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그리스도인이 조상의 은택에 감사하는 것은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겸소하게 드러야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2014

중추절 감사예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명성교회